한국실사출력협회장

최용규

실사출력은 실제의 사진이미지를 프린터를 이용해 인쇄하는 방식으로 옥외광고물 제작에 많이 쓰이는 기법 가운데 하나다. 업계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실사출력업체는 대략 1만 여개 업체로 추정된다. 이러한 실사출력업계 종사자들의 권익보호와 시장 확대를 위한 단체가 최근 설립됐다. 지난 해 9월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발기인 대회를 통해 공식 출범한 한국실사협회(이하 한출협)가 그것. 초대회장직을 맡아 협회를 이끌어 가고 있는 최용규(RGB 디지털와이드컬러 대표)회장을 만나봤다.

"업계 공동발전 위해 최선 다할 것"

한국실사출력협회의 출범과 초대회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소감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편으론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습니다. 기존에 있던 단체가 아닌 신생협회이기 때문에 할 일이 무척 많습니다. 준비위원회에서 부족한 저를 회장으로 추대해 준 것은 업계를 위해서 노력하고 봉사해 달라는 뜻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협회 설립 과정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해 3월에 있었던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실사출력에 대한 규제 조항들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이런 추이를 지켜보면서 뜻있는 업체 분들이 시장 확대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고, 같은 해 7월 28일에 한출협 설립을 위한 첫 주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는 등 급물살을 타게 되었습니다.

이후 준비위원회를 준비하는 총 5차례의 준비위원회를 거쳐 9월 19일에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300여 회원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준비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5차례의 준비위원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10월 18일에 강남구 포이동에 협회 사무실을 마련하고 현판식을 가졌으며, 이어 11월 4에는 코엑스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했습니다. 현재는 사단법인 등록 및 전국의 주요 행정단위별로 지역 지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련 단체가 이미 설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 단체와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실사출력도 옥외광고의 한 분야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옥외광고라고 하면 흔히 간판이나 빌보드 광고물 등을 먼저 떠올립니다. 이미 인식이 그렇게 고정화되어 있는 게 사실이기도 하구요.

그런데 사실 실사출력물은 그 성격이 다릅니다. 제작방식을 보더라도 네온등 조명을 넣는 간판은 일종의 조형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실사출력물은 잉크와 프린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인쇄에 더 가깝죠. 현재 전국적으로 1만 여개의 실사출력 업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실사출력을 옥외광고보다 인쇄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는 종사자들이 더 많습니다.

인식이 이렇다 보니 기존 관련 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 비율이 90% 이상인 것이 현실입니다. 때문에 실사출력을 인쇄의 한 고유영역으로 이해하고 업계종사자들의 이익을 현실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한출협 출범의 필요성이자 의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실사출력 종사자분들의 이익과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탄생한 공식 기구인 만큼 앞으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존 단체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업계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수평적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서로 도와야죠. 한출협 설립 전에 이미 한국옥외광고협회 이형수 회장님을 만나 협회 설립의 당위성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한다는 합의를 보았습니다.

앞으로의 사업계획들을 말씀해 주십시오.

실사출력을 친환경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아가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는 6월부터는 지하철, 극장과 같은 다중이중시설에 설치되는 광고물은 방염인증필증을 한 소재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이 영세사업자들로서는 여간 부담이 되는게 아닙니다. 이에 한출협에서는 방염인증필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저렴한 비용으로 방염성능검사를 해줌으로써 부담을 덜어주려 합니다. 현수막 거치대와 같은 합법적인 광고게시공간을 많이 확보함으로써 옥외광고가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편견을 불식시키는 일도 한출협이 펼쳐갈 주요 사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한 창립 총회시 체결한 업무협약업체와의 업무협약 구체화를 통해 회원사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아직 각 업체별 협의가 진행중입니다만 8개 기자재 업체들과 특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결이 잘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한출협 가입 회원사들은 소프트웨어나 소재를 공동구매할시 20~40%까지의 가격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협회차원에서 대인피해보상에 가입해줌으로써 회원사들이 광고물의 설치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을시, 이에 따른 손해배상, 손실보상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생각입니다. 이밖에도 오는 2월경 세미나를 열어 사단법인 등록 준비 전에 업계의견 수렴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준비 중이며, 협회 주관하에 회원사에 대한 실무능력 향상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해 11월 4일 코엑스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창립총회 모습(위)과 지난해 10월 18일 강남구 포이동에 위치한 협회 사무실 현판식(아래)

신생 단체로서 한출협에 대한 홍보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홈페이지 구축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빠른 시간 내에 여러분께 선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밖에 정기 소식지 발행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업계의 소식이나 협회 사업 내용, 각종 협약 및 행정자치부 사항 등을 전달할 것입니다. 오프라인 발간은 물론 메일링 서비스 시행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전국 1만여 업체들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추정만 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구체적 자료가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이를 위해 협회차원에서 전국 출력업체에 대한 실태 조사와 미등록 출력업체에 대한 옥외광고업 등록을 계도하는 일도 함께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개인사업과 협회 업무를 병행하시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출협 회장직을 맡고 나서는 회사 업무에 예전만큼 신경쓰질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출협은 업계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고, 누군가는 나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행히 운영위원회 임원분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안에 협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실사출력 종사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의 이익과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탄생한 공식 기구인 만큼 앞으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치원 기자 kcw@print.or.kr